

2026년 7월2일 목요일

사랑...

근 40년이 되어가는 것 같다. 전 세계를 하나로 통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고뇌와 하늘의 하느님 석가모님 공자님을 찾으며 방황했던 시절이었다,  
교회를 가도 절에가도 좋지만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의 공간이 있었다,  
기도도 많이하고 좌충우돌하며 지내다 문득 감명이 떠올랐다,  
하느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나의 머리카락 하다못해 모공의 수까지 다 알고 계시며 저의 죄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

2015년 은총 보시 덕 은혜 홍익 인,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칭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다른 소망 프로젝트 중이라 실행할 수 없었다,  
혹시 공자님도 예수님도 단군님도 모두 하느님의 다른 형상화가 아닐까 나는 생각해본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평온해야 만사 형통한다,

평화로운 지구촌 세계, 지구와 우주를 사랑으로 흐르는 시대를 꿈꿔본다,

김지영 올림